

한국言論 公信力회복 급하다

한국 언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나는 우선 언론의 공신력 실추와 언론산업 부실 두 가지를 들겠다. 덧붙이자면 한국 언론은 새 정보기술의 발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과오를 뒤늦게 발견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얼마 전 한국의 광우병 촛불시위를 미국에서 보면서 한국 언론의 위상을 탄식한 적이 있다. 언론이 사실을 똑바로 보도하지 못할 뿐더러, 올바른 보도를 한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다.

뉴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분석이 담당 언론인의 이름 석 자와 뉴스를 실은 매체에 따라 이념적 선입관에 억눌리며 그 뉴스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예사이다.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선동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예사이다. 이래 저래 언론인이나 정치인, 그리고 국민이 모두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상이자.

이런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이념적 성향이 다른 양편의 언론 모두가 믿고 인정할 언론 매체, 또는 언론인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그 동안 언론의 공신력을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이다. 일부 언론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념을 남용한 나머지, 이제는 뿌리가 없어진 이념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하려는 무모한 시도까지 거듭하고 있다.

지난 6월 서거한 언론인 팀 러세르트(Tim Russert)가 사망 두달 전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가진 특별연설이 생각난다. “대답한 많은 정치인들 러스페로 전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항공기 승무원의 질문에, 그는 명쾌하게 답변했다. “라디오 대화나, 케이블 뉴스, 그리고 인터넷처럼 나는 절대로 개인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는 객관성이 높은 질문을 하기에 고심하며, 당신 같은 시청자나 투표자가 자신이 판단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훌륭하고 존경 받는 언론인이었다.

한국의 주요 신문들은 종이 신문과

특별寄稿 장원호

미주리 대학교
언론대학 명예교수



인터넷 신문을 만들며 서로 다른 뉴스 기준을 적용한다. 종이 신문의 공들인 뉴스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 올리며 같은 뉴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을 많이 대하는 젊은 세대에게 호감을 주어가며 독자를 끌기 위한 방안인지 모를 일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일간지의 인터넷판을 보면 정말 얼굴이 뜨거울 때도 많다. 신문이 악플의 공연장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인터넷 신문만을 보는 독자가 그 종이 신문의 가치를 인정하겠는가?

그러나 지나친 경쟁으로 선정 또는 선동적인 색채를 과용하는 예도 적지 않다. 골프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할 때 내가 박수를 치는 것은 그들의 역량을 칭송해주는 것이지만 한국 선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언론은 골프로 돈을 벌어

450억 원 짜리 집을 짓고 사는 타이거 우즈를 ‘골프 황제’라고 추켜세우기 예사이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참 모를 일이다. 얼마 전 영화배우 폴 뉴먼이 자선기금으로 2억5,000만 달러를 남기고 타계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이나 미국의 신문들은 그동안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 하나를 검토해 보자.

미국의 언론 체인이나 신문사는 아직도 호황 분위기에 방송 사업에 일찍이 손을 댔고, 신문과 방송의 벽을 없앤 지도 오래이다. 미주리 주립대 언론대학도 이제 신문, 광고 그리고 방송학과를 없앴다. 전공 구분도 하지 않는다. 어느 원로 언론인은 신문 산업이 뉴스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큐멘터리나 엔터테인먼트용 콘텐츠 제작 사업에서 수익을 올려 뉴스부문에 봉사할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신문 산업이 방송 산업에 손조차 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참 대책 없는 정책이다.

회의중 전 뉴욕 타임스 편집인이었고, 풀리처상 관리인을 지낸 시이모 타핑을 만나 물었다. “요즘 언론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그는 즉각 대답했다. 언론인이 나름의 철학이 없고 공부를 게을리 하느라 언론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언론사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 세계의 유통구조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신문 산업을 뒷받침하던 백화점, 슈퍼마켓, 부

동산 시장이 모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신문광고가 유통산업에 기선을 빼앗긴 것은 아쉬운 일이다. 미래의 신문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이 공신력을 키워서 사이버 인터넷 마케팅 행태를 제압하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광고, 또는 마케팅 매체로 자리나야 하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건실한 성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경제력으로 세계에 존경받는 국민, 그리고 언론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한국 언론과 국민은 이런 명제에 공감하며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한국 언론의 위상을 높여가며 언론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언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할 때인 것이다.

changw@missouri.edu

http://www.whchang.pe.kr

정제안된 선동적 정보 인터넷 등서 활개 신문·방송 벽 허물어「사이비」축출 해야

한국 언론의 건실한 성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세계에 존경받는 국민,
그리고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인터넷 신문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니 적당히 만든다? 또 이런 방법으로 미래의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착각이다. 인터넷 신문도 종이 신문과 같은 뉴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가 인터넷으로 보는 뉴욕 타임스나 로스 앤젤레스 타임스는 그들의 종이 신문과 똑 같은 권위를 주장하고, 또 그렇게 대우받고 있다.

신문과 뉴스방송이 독자와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비교적 호황을 누렸다. 미주리 주립대 언론대학은 지난 9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원로 언론인 1,000명을 초청하여 ‘어떻게 하면 신문을 살릴 수 있는가’를 신중하게 논의했다.

종이 신문은 날로 어려워지리라는 것, 인터넷 신문은 지금 신문 산업의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리라는 것, 이런 현상을 인정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자는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뚜렷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긴 어려웠다.

혈액 및 전립선 무료 검사

전립선 암검사(PSA)와 초음파 검사
12월 6일 9시부터 프레스센터 12층

大韓言論人會

送年詩

길을 묻는 이에게



김후란

· 본회 회우
· 시인

이 새벽
청정한 기운을 품어 안으며
지금 길을 묻는 이에게
머리 숙여 응답하노니

길은 어디나 있습니다
저기 풀빛 안개 밀려오는 쪽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손길

이 해의 끝자락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어디선가 아기울음 소리 들려오고
숲그늘에서 깨어 날개짓하는 새들이 보이
는데

길을 묻는 그대에게
경건히 응답하노니
밀려오는 햇살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길은 어디나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길
아무도 가지 않은 먼 길일지라도
힘있게 내어딛는 새벽의 첫 걸음 앞에.



고동균 씨



김영관 씨



박종인 씨



방종오 씨



이학준 씨



임은정 씨



정인택 씨



한용호 씨

제17회 대한언론상 수상자 선정

언론상 조선일보 '탈북' 취재팀
공로상 최창봉 본회 명예회우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는 2008년도 대한언론상 수상자로 조선일보 탈북 기획 '천국의 국경을 넘다' 특별취재팀인 크로스 미디어팀을 선정하고, 공로상 수상자로 원로 방송인 최창봉 본회 명예회우(83)를 선정했다.

본회 언론상심사위원회(위원장 문명호 부회장)는 지난 17일 제 3차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조선일보 탈북자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 특별취재팀에게 제 17회 대한언론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기자 및 PD 등 8명으로 구성된 탈북자 취재팀은 2007년 5월부터 10개월 동안 중국 러시아 라오스 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9개국을 이동하며 300명이 넘는 탈북자의 고난에 찬 탈출 현장을 직접 취재, 영상물로 제작했다. 이 작품은 영국 BBC, 미국 타임 워너, 일본 TBS, 프랑스 CANAK+, 독일 ARD, 호주 SBS 등 20여개 국에서 상영됐다.

취재팀은 이 기록물을 08년 3월 3일부터 28일까지 6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다큐멘터리 취재에는 박종인·이학준

기자, 정인택·임은정 PD, 한용호·김영관(카메라), 방종오 기획자, 고동균 작가 등 8명이 참가했다.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대량 탈북 10년을 맞아 1만3,000명이 넘는 탈북자가 국내에 정착한 시점을 맞아 지금도 중국 태국 라오스 러시아 등 이역만리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을 찾아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을 밀착 취재한 취재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 동시에 영상물로 제작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 방송함으로써 탈북자들과 인신매매 등 인권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한편 최창봉 명예회우는 전 동아방송, 중앙방송(KBS 전신) 국장과 MBC 사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방송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출처]



최 창 봉 명예회우

2008 송년회 12월 15일 개최

古稀宴, 언론상 시상 함께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본회는 칠순 회우들을 위한 고희연 및 송년회를 오는 15일(월) 오후 5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갖는다. 이 모임에서는 제 17회 대한언론상 시상식도 함께 갖는다.

올해 대한언론상은 조선일보 탈북자

취재팀인 크로스 미디어팀에게, 공로상은 최창봉 명예회우에게 시상된다.

올해 고희연 대상 인원은 모두 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09년도 정기 총회는 1월 23일(금)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고희 회우명단

구종서(중앙일보)
권혁만(한국경제)
금창태(중앙일보)
김경중(서울신문)
김경태(한국일보)
김규문(경향신문)
김기원(산업경제)
김병무(한국·세계일보)
김성배(KBS)
김운곤(조선일보)
김은구(KBS)
김정기(서울신문)
김종현(조선일보)
김해도(한국일보)

남시욱(동아·문화일보)
노영태(KBS)
박승채(산업경제)
박유선(동아일보)
박응철(동아·KBS)
박채규(MBC)
백인호(매일경제)
신경식(대한일보)
신광식(KBS)
신동철(중앙일보)
신동호(동아·KBS)
안병훈(조선일보)
안성열(동아일보)
엄종석(대한일보)
윤기병(중앙일보)
윤석웅(매일경제)

이광영(한국일보)
이한수(서울신문)
이현구(조선일보)
장석훈(조선일보)
정병교(대한일보)
정성진(중앙·CBS)
정운종(경향신문)
조남조(중앙일보)
조덕일(동아·문화일보)
조창화(KBS)
천승준(동아일보)
최상완(경향신문)
최종명(강원일보)
한영탁(조선·세계일보)
임한순(연합통신)
정두진(KBS·CBS)

언론재단 이사장에 고학용 회우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에 고학용(高學用·66) 회우가 지난 달 26일 취임했다. 또 사업이사에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기금이사에 김문오 전 대구MBC 보도국장, 연구이사에 선상신 불교방송 보도국장이 취임했다.



고 학 용 회우

高 이사장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관훈클럽 총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제 4부 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직전 이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0년 12월 말까지다.

日堂 金泰伸 화백 화첩 기증

日堂 金泰伸 화백은 오관룡 원로 회우를 통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2002년 판 채묵화세계 <화첩>을 본회에 기증했다.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 김태신 화백은 1922년 9월 생으로 一葉스님의 아들이다. 고 以堂 김은호 화백의 애제자로 종진화가 그룹에 들어 있다.

日堂 金泰伸
彩墨畫世界



2002

시험대 오른 오바마 통합의 政治力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4년간 이끌어 갈 내각과 백악관 비서 진영의 윤곽이 대선이 끝난지 약 3주만에 대체로 들어났다. 주요 각료 내정자들의 면모를 보면, 당공천전에서 끝까지 겨루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국무), 에너지 장관과 UN 대사를 지낸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상무), 전 상원내 총무 대술(보건후생), 나폴타노 애리조나 주지사 (여·국토안보), 전 법무 장관 에릭 홀더(흑인, 법무), 뉴욕연방은행 총재 가이트너(재무) 그리고 6선 하원의원 람 에이마뉴엘(비설실장)과 같은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오바마의 인사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47세의 첫 흑인 대통령이 과연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을 잘 리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일부 비판자들 중에는 과연 그에게 진정한 정치적 포용력이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오바마는 당선 후 제일 먼저 만날 대상으로 그의 라이벌 힐러리 클린턴을 택하였다. 그 만남에서 흘러나온 힐러리 국무장관 제의설은 설왕설래하다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부시 현 대통령과 파월 전 국무장관간의 불화설, 케네디와 린든 존슨 부통령 사이의 알력, 트루먼과 애치슨 간의 협조,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과 키신저 간의 협력 관계가 연상되기도 하였다.

힐러리와와의 회담과는 달리, 지난 주초 오바마와 맥케인 상원의원 간의 회담은 기대되었던 만남이었다. 4년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 그에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국 전역에 중개될 기조연설의 기회가 왔을 때, 오바마는 이 연설을 통해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 라틴민족의 미국, 아시아인의 미국은 없고 미합중국만 있다”는 표현으로 초당적 단합을 호소하여 우렁찬 박수를 받았다. 오바마는 2008년 대통령 선거유세에서도 당선되면 누차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하였으니 말이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이같은 선거직후 대통령 당·낙선자간의 회담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큰 경제위기에 직면한 오바마 입장에서는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부터의 지지는 초당적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그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맥케인 입장에서도 백악관과의 협력적인 관계는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야당 지도자의 영향력 행사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호 유익하였다는 평이다.

양 후보는 인터넷 신문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쟁점들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였지만 오바마의 시카고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45분간의 회담에서는 워싱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포함한 몇 개 분야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국방비 지출의 낭비를 없애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당선자는 “기업재정지원”을 식별하고 찬반 투표로 낭비된 부분을 예산에서 삭감시킬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맥케인의 제안을 칭찬하였다. 이 위원회는 의회가 집단 별로 찬동이냐 거절이냐에 따라 폐쇄될 수 있는 군사기지 명단 건의를 위해 세워진 위원회를 모델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는 이 회담 벽두에서 “우리는 나라를 고치기 위해 약간의 공동으로 협력할 사항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나눌 것이며 아울러 맥케인 상원의원에게 이미 훌륭한 봉사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오바마 측의 보좌관에 의하면, 양자 회담은 기후변화, 출입국 관리업무개혁 그리고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이상의 대선 직후 오바마가 실천에 옮긴 두 정책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영합주의적 정치 행태로 치부할 수는 없



유지호

- 본회 회우
- 전 예멘 대사
- 자유지성 300인회 총무

에서라도 꼭 완수 하겠다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 자리에서 말한 공약이 금융위기, 높은 실업률, 이라크 파병 미군 철수와 같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에너지 독립,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확대, 그리고 연방정부 개혁 등 중장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오바마는 공화당 맥케인 후보를 지지한 우익 보수세력과 그를 지지한 좌익 진보세력의 양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가 최근 그의 공천 전 당시의 정적이었던 힐러리 상원의원에게 수석각료 자리인 국무장관을 제의한다든지, 대선 경쟁자인 맥케인 상원의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단순한 제스처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 속하면서 선거기간중 반대당의 맥케인 후보를 지지했던 리버먼 상원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지키도록 한 결정은 당선자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

인종 - 좌우 갈등 두 정체성 포용여부가 과제 힐러리 기용 - 맥케인과 협력 등 출발은 순조

을 것 같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한 멤버이자 하버드 로 스쿨의 동창인 카샌드라 버츠 여사는 선거전이 한창일 때 한 잡지사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비정한 통합 정치력의 원천은 “평생 두 경쟁적인 정체성(dueling identities)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오바마 특유의 인생역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0월 18일자 뉴욕타임스 특집 기사에서 인용 보도되었다.

오바마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미국 유권자들이나 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세계 도처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의 당선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였을까? 그 가장 자명하고 큰 이유는 흑인으로서 당선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투표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필자가 아는 미국 통이라는 한국인들은 3명 중 2명 꼴로 미국내 깊은 인종적 편견을 들어 압담하게 전망하였다. 선거운동을 보도하는 미국 언론의 태도도 ‘브래들리 효과’를 우려하여 계속 앞서는 여론 조사에도 불구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다.

오바마는 그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시카고 그랜트 공원에 운집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의 앞에 가족과 함께 나타나 미국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이번 임기 내에 끝내지 못한다면 다음 임기

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개월간 오바마의 공천전과 대선경쟁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는 두 가지 문제, 즉 인종차별과 금융위기에 대해서 초반전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가급적 거론을 자제하는 것 같이 보였다. 공천 경쟁에서 오바마는 힐러리 후보가 대기업이나 로비스트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워싱턴 정가의 개혁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공격하였다. 한편 오바마는 대선출마를 결심하는 단계에서 앨 고어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득표수에서 이겼지만 선거인표에서 패배한 교훈을 중시하였다. 인구가 많은 주에서 득표에서 승리하더라도 소규모 주를 등한시 하면 앨 고어처럼 낙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간의 첫 경선이 가장 빨리 있을 예정인 아이오와 주에 대해서 그가 10년간의 시카고 선거전의 경험을 살려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주력하였다. 대도시를 중시하였던 힐러리는 이 첫 대결에서 의외로 대차로 패배하였고, 그 다음 예선지인 뉴햄프셔에서도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자 클린턴 부부는 비상대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신문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힐러리는 눈물에 호소하였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선거유세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으로

서는 말하면 안 되는 인종에 호소하였다. 그 결과 힐러리는 연속 패배의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다.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오바마는 별로 인종차별이 없는 하와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류학자인 홀 어머니와 외조모의 따뜻한 보호 하에서 사는 동안 차별을 당한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미국 본토에 와서는 환경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마도 LA의 옥시덴털 대학에서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으로 전학한 후부터 인종차별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1990년 출판한 자서전 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의 꿈(Dreams From My Father)〉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사회봉사활동을 벌인 3개 대도시 중에서 시카고를 선택했던 것은 뉴욕의 할렘지역 재개발이 이미 끝난 상태였지만, 시카고는 도시재개발계획이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카샌드라 버츠는 오바마의 동창들이 그 자서전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 스쿨에서는 전혀 그러한 역경을 체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오바마는 그 출판물이 나오기 전에 이미 두 정체성들, 인종들 간의 갈등을 훌륭히 극복하였다는 말이다. 버츠는 동료 학생들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하버드 로 스쿨의 총책임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필자는 동료들의 추천을 받도록 그의 숨은 노력이 주효하였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싶다.

로 스쿨의 편집총책임자로 있으면서 그가 80명의 편집자들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 수가 있었는지가 미국 언론계의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편집회의 사회자는 말을 아끼고 문제점에 대해 참석자들의 대립되는 견해를 잘 경청한 다음 합의점을 도출하여 결론을 낸다는 것이다. 버츠의 해석에 의하면 오바마는 평생 자기 가슴 속에 싸우는 두 인격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협상의 도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바마의 통합의 정치력의 원천이 있다는 설명이다.

오바마는 시카고 대학을 둘러싼 도시남부의 재개발 지역에 투신하여 3년간 빈민 가정의 청소노동자와 재개발사업에 종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유권자의 조직화에서 권력이 생기고 권력을 통해서만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하버드 대학교 로 스쿨의 졸업장이 간판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여 1988년, 하버드 로 스쿨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입학 2년 후 그가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하버드 리뷰〉라는 유서 깊은 학술지(한 권의 부피는 2,000페이지, 학생 편집자 수 80명)의 총책임자로 선출되었고 이 사실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 의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다.

〈5면으로 이어집니다〉



왜 J를 '완전한 소주'라 하는가?

- 천연미네랄이 살아있는 1,032m 해양심층수가 함유되어 소주맛이 깨끗하니까
- 천연대나무숯과 구조토로 2번 정제하는 첨단 ACF공법으로 더 깔끔하니까
- 국내주류업계 최초로 NON-GMO를 선언 100% 핀란드산 순수결정과당을 쓰니까

진로의 차세대 대표소주

완소주J



해양심층수에서
완전한
소주 J를
찾았다

방 송 시 평

TV속의 아름다운 동행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좀 이른 시간에 방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도움을 주면 좋겠네요.”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방영되는 KBS 1TV의 현장 르포 동행에 대한 네티즌이 제작진에게 보낸 시청 소감의 일부다. 언뜻 보면 요즘 TV는 폭력과 음란물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정치 뉴스가 전부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름답고 유익한 프로그램도 꽤 있음을 알게 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며 곳곳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러나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있으며 시청자들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아름다운 동행을 내세우며 KBS가 방영하고 있는 휴먼 다큐 사미인곡, 다큐 미니 시리즈 인간극장, 현장 르포 동행, 러브인 아시아, 사랑의 가족, 카네이션 기행, 사랑의 리퀘스트 등이 감동을 주고 받으며 서로 돕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 보겠다는 것이 기획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 르포르타주 형식의 현장



호 천 우

· 본회 회우
· 전 KBS 취재주관
· 신성대 교수

11월 6일에 방영된 제 45화 ‘말팔 차순이의 열네 살 가을’은 고령의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 그리고 어린 세 동생들과 살고 있는 중학생 차순이가 이야기다. 밥하기, 빨래하기, 동생들 목욕시키기까지 맡아 하는 차순이는 야무진 살림꾼이다. 그런 차순이 집에 지난해 11월 불이 났다. 가진 것이 없는 68살의 아버지가 혼자 집수리에 매달리다 힘에 겨워 자리에 눕게 되고 차순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운 차순이는 한푼 두푼 모은 용돈을 털어 아버지에게 겨울 내의를 선물한다. 선물을 못 받은 장애인 어머니가 서운해 하자 엄마 것은 다음에 사 줄게요 하며 미안해하는 어린 차순이의 심성이 눈시울을 붉히게 한다. 열네 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여러 가지 일을 겪는 차순이가 성인이 됐을 때를 생각하게 하는 방송이었다.

어려운 환경 처한 이웃애기 시청률 낮은 시간 편성 문제

르포 동행은 가난한 사람들의 충격적인 삶의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 대다.

지난 10월 30일에 방영된 제 44화 ‘파랑새는 있다’는 배우가 꿈인 25살의 여대생 채송화 씨의 이야기다.

2년 동안 휴학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지만 당뇨합병증과 갑상선 이상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로 모두 써버렸고 예전에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밀려 독촉전화에 시달리는 아픔을 견뎌낸다. 어렵게 복학을 하고 갖가지 아르바이트와 학교를 스쿠터로 바쁘게 오가고 잠은 학교 연습실에서 자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450만원이란 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는 벅찬 일이다.

그러나 송화 씨는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이다. 힘들고 딱한 사정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과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미래에는 무지개가 뜨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지난 11월 20일에 방영된 제 46화 ‘소라네 쪽방’은 아내의 가출에 이은 사기 피해와 실직으로 11살 소라와 10살 명수 남매와 같이 쪽방에서 살고 있는 45살 종철씨네 이야기다. 돈을 못내 도시가스는 끊어지고 찬물에 세수하며 냉방에서 새우잠을 잔다. 공동으로 쓰는 재래식 화장실이 싫어 소라 남매는 공원화장실을 이용한다. 종철씨가 야근하는 날 밤에는 허술한 쪽방으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무섭다.

어느 날 남매가 주운 빈병으로 라면 두 봉지를 사서 조심스럽게 휴대용 가스 레인지에 끓인다. 쪽방에는 부엌이 없기 때문이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종철씨는 3년째인 쪽방생활 탈출을 결심하고 지방 출장 일까지 시작한다. 헤어짐이 두려워 우는 소라, 위로하며 끌어안는 아버지와 동생의 가족애가 진하게 전해진다.

아름다운 동행에 방송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 [이영희]

(3면에서 이어집니다)

오바마 당선에 대해서, 마천루가 올라가고 있는 두바이의 술탄 라시드 알 나토움은 “나는 미국을 좋아하지만 외교만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오바마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표시하였다. 11월 19일자 독일의 슈피겔 인터넷 신문은 걸프 리서치 센터의 한 간부가 유대인 출신의 미국 하원의원 에 마누엘 씨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

된 사실을 들어 많은 아랍인들이 “경험이 없는 오바마를 불안스러워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의 통치력은 바야흐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안보면에서나 경제면에서,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합중국이 2009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이 당면한 재정위기의 극복을 통해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영희]

신 문 시 평

度 넘어선 대통령 戲畵化



이 병 국

· 본회 회우
· 전 한국경제 부국장
· 한서대 대우교수

누구의 작명인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는 ‘월박, 복박, 주야박’(越朴, 復朴, 晝夜夜朴)이라는 신조어가 이명박 대통령이 처해 있는 어려운 처지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출범한지 불과 몇 개월에 엄청난 ‘쇠고기 파동’을 겨우 넘었다 싶었는데, 널뛰는 주식시장, 환율방어, 남북관계, 종부세 등 산적한 국내 경제문제가 짓누르고 있고 세계적인 불황과도 싸워야 하며 FTA비준 등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와의 소통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이 대통령은 흔히 취임 6개월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언론과의 ‘허니문’도 가져보지 못한 첫 대통령이었다. 5년전 이 무렵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신성시하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정도였다.

사한 시사만화는 경향신문 5건, 중앙일보 2건 그리고 한겨레 12건 등 모두 19건이었다. 특히 한겨레의 경우는 같은 기간중 5건을 제외한 12건이 이명박 대통령을 주요 행위자로 묘사할 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을 주 행위자로 한 ‘그림마당’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 뉴스에 “오바마가 누구냐?”며 당황해하는 모습(5일자)을 비롯 ‘북미관계 급진전설’에 잠 못이루는 이미지, FTA 비준 밀어붙이는 ‘무데뽀’ ‘불났을 땐 너 나 없다!’(19일)등을 통해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워하며 냉소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중앙일보 ‘김상택 만평’ 2컷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조원 준다’(4일자)는 발표에도 서울역 앞에 길게 늘어선 빈 택시 운전사들이 ‘여긴 아직 멀었다’며 냉소적이며 “금리 내려 대출 쉽게”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은행원들이 대출을 거부하는 모습(19일자)을 통해 역시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겨레는 한술 더 뜬다. ‘한겨레 그림판’에서 만나는 대통령은 대부분 냉소적이고 소신이 없고 분노의 대상이

시사 만화 냉소적 묘사 많아 명확한 기준없이 왜곡·과장

그러나 국내적으로 지금과 같은 불안한 모습의 경제적 난관은 없었고, 언론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허니문을 지켰으며 세계 다른 경제도 성장률이 낮았지만 지금 같은 굴곡과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언론이 대통령이건 또는 권력자에 대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당연하다.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바로 언론의 원초적인 사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상대방의 품속에 들어가 가능하면 뭍 수 있는 대로 권력자의 참모습과 실상을 낱알이 파헤치고 싶다.

그러나 언론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분노심을 유발하고 당황하는 모습의 이미지로 부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왕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영국 속담이나 “일단 시민들의 인심을 잃으면 두번 다시 그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링컨의 말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 들어맞는 말인 것 같다. 지도자를 지나치게 희화하고 지도자로 받들 사람이 적다면 나라의 앞길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대통령을 냉소적이고 희화적으로 만드는데 신문들이 한 몫을 하고 있다면 의아해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11월(1~20일)의 한 컷짜리 시사만화를 보면 이같은 말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을 만화의 주요 행위자로 묘

며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고 있다. ‘국제중학교 설립’이 ‘입시전쟁’을 유발해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여러분 성 공하세요”(1일)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냉소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FTA비준과 관련해서는 “그만 쫓아 와, 정신 좀 차려”라는 부시 대통령의 똥단배를 무조건 뒤따르려는 모습의 무소신(5일자)을 묘사하고 있다. 한겨레 그림판은 계속해서 일부 선진국이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KBS, MBC, SBS, YTN’ 등 언론을 규제하려는 대통령(11일자)으로 대비시켜 놓아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활동을 감시하고 잘못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문만화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

현안에 대한 비평, 논평 또는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서 칼럼과 비슷하지만 과장하거나 생략하고 함축 등 특유의 비판기능으로 뉴스 보도의 원칙인 정확성, 공정성과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사만화의 이러한 특유의 기능은 동시에 집권자의 인물과 통치행위를 명확한 기준 없이 냉소화, 무소신 등으로 왜곡, 과장시켜 놓을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시사만화가 우리 정치 사회와 언론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영희]

언론 언론인 60년

특별사진전시회

12월 15일~22일 /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재단

■ 관람 문의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진흥팀 (02-2001-7751, 7754)

주최 한국언론재단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회우들이 펴낸 新刊

구종서 회우 역사소설 '삼별초'

한국문명사연구소 소장인 구종서 회우가 전 3권의 역사소설 <불멸의 민족혼 삼별초>를 펴냈다.

제 1권 <삼별초 왕국> 제 2권 <진도의 혈전> 제 3권 <장렬한 비극>으로 되어있는 이 책은 국가의 자주를 지키기 위해 햇불을 밝힌 고려 군인정신의 발로이자 항몽의식의 정수인 삼별초를 그린 장편 역사소설이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에서 39년간을 버틴 고려 군사들은 고려가 몽골의 부마국으로 예측되는 것에 반대하여 1270년 강화에서 삼별초가 발진되었다. 삼별초는 독립된 고려 정부를 세우고 진도로 이동하여 저항하다 탐라에서 여몽 연합군에 의해 대부분의 군사가 포로·전사를 당하고 패전하였다. 삼별초 지휘부 장수들은 '항복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며 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부인들마저 은장도로 모두 자결하는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비극사이다.

이 소설은 작가의 전공(정치학 박사)과 실무경험(전 중앙일보 군사문제 대기자)을 바탕으로 이론과 역사의 현장을 사실감 있게 그렸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주를 달아 중요 부분을 설명했고 100여편의 국내외 참고문헌과 전술 전략지도도 삽입했다. 국내를 비롯한 일본, 몽골의 관련지역 현장 답사기와 사진을 매권마다 넣어 독자들에게 '역사 있는 역사소설'을 충실히 전달케 하여 역사를 사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불멸의 민족혼 삼별초는 이 소설을 통하여 고려 혼은 죽지 않고 겨레의 정신과 마음과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아 이어져 나갈 것이다. (A5판 각권 300p 내외, 각권 12,000원, 청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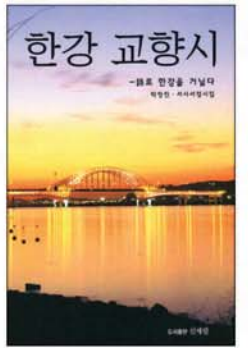


박정진 회우 시집 '한강교향시'

중견 시인이자 인류학자인 박정진 회우가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에서부터 하구인 강화까지 전 구간을 발로 답사하고 거닐면서 시정을 노래한 서정·서사시집<한강교향시>를 펴냈다. 한강을 주제로 오랜만에 등장한 민족대서사시인<한강교향시>는 총 135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원로 사진작가 정범태, 김한용씨 등 20여명의 사진작가가 참가하여 시집을 이미지로 읽는 데에 힘을 보탰다. 각 시마다 충실한 주석과 참고 자료, 200여 장의 사진 등을 곁들여 한강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한편,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5,000년 동안 형성된 우리 역사와 문화 전반을 조감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 시집은 특히 박 시인이 쓴 시와 산문을 합하여 총 100권째 책으로 펴냈다는 점과 해방 이후 인문학 분야에서 기린 아적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시인은 이 시집에서 한강을 노래하면서도 미래지향성을 관철하여 종래 식민지 시대

의 한탄조(恨歎調)나 분단시대에 따른 비가(悲歌)류,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들을 극복하고 '한강 르네상스' 등 밝고 활기찬 긍정적 이미지들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 시집의 1장은 한강은 바다다(프롤로그), 2장은 한강, 3장은 남한강, 4장은 북한강, 5장은 마음속의 한강(에필로그) 등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강교향시>는 100여 곳을 직접 답사하면서 시정과 역사의식을 표출하고 있는데, 발원지인 태백을 비롯하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와 팔당, 한국의 맨해튼인 여의도, 그리고 강의 하구인 강화도에서는 여러 편의 농도 짙은 시정을 보였다. (350쪽 값 20,000원 신세림)



박석홍 회우 '건국60년, 역사학...'

박석홍 건양대 겸임교수(본회 회우·전 경향신문 논설위원)가 학술전문기자(33년)와 대학교수(8년)로 신문 월간 연감 학회지 학술회의 등에 발표한 글, 강의록, 취재노트 등을 기초자료로 <건국 60년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의식>을 펴냈다. 일제 식민사관·중국 동북공정·친북 자학사관의 도전으로 한국사 체계화는 물론, 역사 교육까지 혼란스러운 한국사학의 현주소와 역사의식을 점검한 책이다. 저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58년 문제를 제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본격 추진한 일제 식민사관 청산 작업을 일별하고, 이 작업에 앞장선 홍이섭 김철준 천관우 김상기 이진희 교수 등 학자들의 업적도 높이 평가했다. 제 3 공화국에서 본격화된 식민사관 극복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국사교과서 논쟁, 삼국사기논쟁, 친일논쟁, 사육신논쟁, 북한저술 표절시비 등을 심층 분석하고 문예춘추를 통해 한국을 비하했던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의 황국사관을 비

판한 도시유기(田村紀之)東京都立大 교수의 논문도 소개했다. 중국의 문화혁명 세대와 비슷한 386세대의 친북 자학사관이 제기한 세대간 갈등과 함께 일본 학계의 신식민사관을 추종하는 경제학계 일각의 식민지근대화론의 오류도 공박했다. 박 회우는 이 책에서 역사학 발전사와 이면사를 정리하며 친북 자학사관과 정파신문이 왜곡한 이승만 대통령 주도의 대한민국 건국사와 6·25극복, 제3공화국 압축경제성장의 진실도 소장사회과학자들의 논문으로 반박 수정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마감하며 정치도구화되었던 편향적인 사관을 극복하고 역사학이 진실을 추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배판 482쪽 값 28,000원 한국학술정보주)



장두원 회우 '언론, 그 일그러진...'

장두원 회우가 30여년 동안 신문기자, KBS 방송기자, 보도본부 주간으로 활동하며 겪은 유신시대부터 최근까지의 정치사를 정리한 <언론, 그 일그러진 자화상>을 펴냈다.

5·18 광주항쟁 최초 보도한 용기있는 언론인'의 '얼룩진 언론계에 대한 자기 고백서'란 문구를 단 이 책은 한 언론인의 굵직한 사명감이 이룩한 승리의 역사서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언론사의 산 역사가 될 귀중한 자료를 유추해 봄으로써 어쩌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사실들을 좀더 정확히 알고 바로 잡아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 책은 신군부(1980년도)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적나라한 실상을 밝힌 유일한 자료서이다. 저자가 체험했던 군사문화, 독재정권, 선진형 국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시대의 독재하의 언론인의 지표와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되짚어 본다. 언론인으로서 냉철한 판단으로 세상

에 '알림'을 목표로 하여 누구도 선포 나서지 않는 두려운 사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광주항쟁'을 최초로 보도한 그의 '공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의 내용중 상당 부분이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당시 실상을 피력하고 있다. 해직당한 그들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여 동료들을 구하는 저자의 인간적인 면모는 읽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이 책을 펴낸 저자는 무엇보다도 언론인의, 언론의 올바른 자세를 역설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혼란스러웠던 근대사를 올바르게 정리한 이 책은 지난 역사를 바로 일깨워 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356쪽 값 13,000원 정은출판)



www.sedaily.com

반세기 경제 메신저-

서울경제 SEN

서울경제TV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나온 길처럼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경제메신저 반세기 서울경제가 함께합니다.

구독 : 730-7000
광고 : 724-2821

자매지 한국일보 · THE KOREA TIMES · 조선한국일보 · 스포츠한국 · 주간한국 · GOLF · Hankook.com · 미주한국일보

“우리것 지켜야” 변함없는 한말글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5>

회우초대석

文 濟 安

· 전 서울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기자
· 전 조선일보 기획위원 겸 체육부장
·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현)

인터뷰 / 최희조(본보 편집위원 · 중부대 초빙교수)

방송국 아나운서, 기자, 연극 영화 연출 및 제작, 대학교수 등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 이 다양한 이력 말고도 더 많은 세월을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문화사업이 있다. 한글지킴이, 우리말글 연구 보급운동이 그것이다.

문제안(文濟安)회우. 3·1독립운동이 일어난 다음해인 1920년생.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태어났다. ‘제세안민(濟世安民)’ 하라고 부친이 ‘濟安’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내년에 구순을 맞는 요즘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1주일에 이들은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한글학회 사무실에 나가 일을 본다.

지난 11월 17일 오후 한글학회빌딩 4층 사무실에서 문 회우를 만나 말씀을 들었다. 2시간 남짓 계속된 회견 내내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찌릿찌릿하게 높았던지 연세를 무색케할 정도였다.

그가 한글문화 사업에 본격 뛰어든 것은 지난 1966년 한글전용추진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부터. 그뒤 한글문화단체 모두모임의 사무총장, 회장을 거쳐 올해 창립 100돌을 맞은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로 있다.

“한글학회가 한글학술단체라면, 한말글문화협회는 우리 말과 글을 널리 알리고 즐겨 사용토록 하기 위한 선전단체이지요.”

문대표는 “1964년 발족한 한글문화협회를 2005년 한말글문화협회라고 고쳐 부르게 됐다”면서 “글의 바탕이 말인데 한겨레 말을 바로 살려 쓰면서 한말글 사랑으로 온 겨레의 힘을 다시 모으고 가꾸기 위해 협회 이름에 ‘말’을 보태 한말글문화협회라고 고쳐 부르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한말글 정책연구, 강연을 비롯해 한말글 바로 쓰기 계몽운동, 한말글 문화의 세계화운동 등을 벌인다고 한다.

그는 2년전 걸음걸이에 불편이 왔으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양정고보 21회 졸업생으로 갑조와 을조, 각 50명씩 1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4명만이 생존해 있어요. 그나마 병원 신세를 지고 있거나 바깥 출입을 못하는 친구를 제외하면 나돌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나 정도예요.”

“손기정 선수는 나보다 나이는 8살이 많지만 학교는 같이 다녔어요. 둘이 다 갑조에 속했고 나는 그보다 나이가 어린 데다 체구가 작아 영락없는 동생과 큰형님 사이 같았어요.”

기록을 살펴보니 손기정(1912~2002) 선수는 평안북도 신의주 태생으로 가정형편상 초등학교를 16살에, 그리고 양정고보는 1937년 25살에 문 회우와 함께 졸업했다.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은 손 선수가 문 회우보다 1년 먼저 1940년

졸업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니까 손 선수는 양정 졸업반이던 1936년 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 출전해 우승, 금메달을 딴 것.

“우리 학생들은 손 선수를 어떻게 환영할까, 밤새워 논의를 하던 중 서울역에서 중구 만리동 학교(현재는 양천구 목동으로 이전)까지 붉은 황토를 깔고 임금이 타는 것과 같은 ‘열’을 만들어 거기에 손 선수를 태워 행진을 벌이자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나 교장 선생님을 비롯, 여러 선생님들이 나서서 간곡히 만류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일장기 말소 사건’에다 손 선수의 사진에 한글 사인을 한게 문제가 되는 등 시국이 좋지

이란 걸 잊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때는 지나가는 말 같았지만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 예삿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문 회우가 한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을 맺게 된 배경에는 양정고보 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다.

“장지영 선생님이 계셨어요. 일제는 학과목에서 조선어 과목을 빼라고 해서 중국어를 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 놓았는데 중국어를 1시간 더 가르쳐야 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한동안 몰래 가르쳐 준 분이었어요. 우리 말과 글은 곧 우리 민족의 얼과 같은 것이란 말씀을



1957년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최초의 TV기자로 인터뷰를 했다.



요즘 언론상황에 대해 목

손기정씨와 양정고 同期... 젊어서 스키등 스포츠에도 기여 “요즘 언론 보도 답답... 한글 글씨꼴 바꾸는게 마지막 소원”

많은 분위기 속에 그러한 환영행사로 말미암아 학생들에게 위해가 가는 일이 벌어질까 보아 그랬겠지요.”

문 회우는 양정고보 시절 모파상의 소설에 매료돼 한국의 모파상이 될 것을 꿈꾸었다고 한다. 그의 작품 가운데서도 단편소설 숲통의 줄거리를 잊지 못하고 있다. 일본 메이지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문예과에서 연극 영화를 전공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후 동양극장에서 한 1년 무대감독으로 일하다 1943년 공채로 경성방송국 아나운서가 됐다.

“소설가나 예술가처럼 창작하는 일을 하고, 모파상이 되고 싶었는데 창작을 하는 대신 어떤 사실의 전달 역할을 하는 아나운서가 된 것이지요.”

아나운서 연수 2주일 됐을 때 당시 보도과장으로 있던 이해구씨가 우리 말로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

했어요. 우리 말과 글이 없으면 우리 민족도 없다는 말씀이었지요.” 張志曄씨(1887~1976)는 뒤에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전신) 이사장을 지낸 분이다.

장 선생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글 전용주의자가 됐지만 그렇다고 한자나 영어 등 외국어를 배우지 말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겨레의 얼인 본디 우리 말을 소홀히 하거나 버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영어를 권장하기 전에 우리 본딴말을 제대로 하고 영어를 하라는 것. 이스라엘이 2000여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도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말과 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문제안 회우는 아나운서로 방송국에 들어갔지만 일본어 통신을 우리 말로 번역하고 방송 기사를 만드는 일도 많이 해 기자나 다름 없었다.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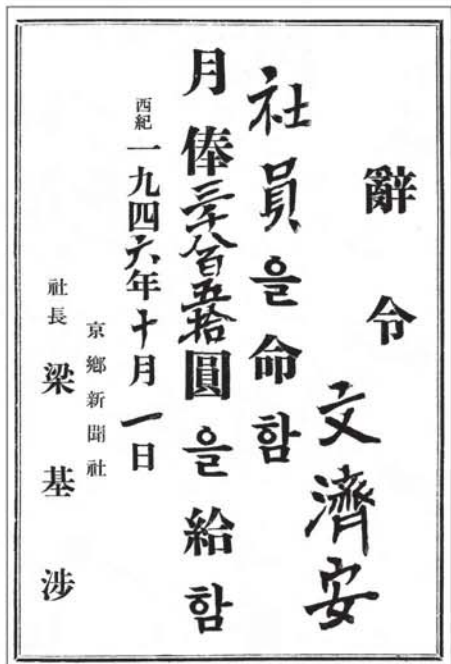
를 위해 일제 말기 총독부를 출입하기도 했다. 잊을 수 없는 건 광복 후인 1945년 10월 17일 중앙청에서 있었던 이승만 박사 한국 기자회견을 취재 보도했다. 문 기자의 이 박사 한국 회견내용이 경성방송국 전파를 타고 나가자 문제안은 일약 방송기자 1호로 불리는 영광을 안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회우는 방송국에서 모두 6년여, 그리고 신문사에서 통산 16년여를 기자로 일했다. 통산이란 낱말을 쓴 까닭은 경향, 자유, 서울, 조선, 평화, 한국 등 무려 11군데 신문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오소백(吳蘇白·1921~2008)씨 다음으로 많은 신문사 기자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의 이력서를 보면 방송국과 신문사 경력 말고도 연극 영화 일에 16년, 그리고 대학교수로 13년을 보냈다.

사랑



소리를 높이는 문재인 회우.



1946년 경향신문 사령장.

이제는 나이 들어 다 접었지만 한 때는 스키협회 이사, 승마 협회 부회장, 역도 협회 중앙위원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강원도 평창 횡계리에

書舍餘話⑥

최근 소설 수필집 등 문학서적을 비롯한 인문 사회과학 책들을 책꽂이에서 대거 들어냈다. 그 가운데 문학전집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단한 식견이나 안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글에 대한 내 식성이 기준이라면 기준이라 하겠다.

본래 베스트셀러나 화제가 만발한 책에 대해 열른 손이 가지 않고, 수사가 너무 현란하거나 유행에 민감한 글, 감정 과잉의 문장을 그리 가까이 하지 않던 성격이었는데 젊은 날은 내 취향만 고집할 수 없어 내키지 않아도 읽을 수밖에 없었다. 직장 일의 성격상으로 보아도 그런 편식은 해서는 안 될 노릇이었다. 그러나 퇴직 이후는 그런 부담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일도 그다지 많지 않아 내 입맛에 충실해도 되겠구나 하는 고집 같은 것이 생겼다.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이는 그 중 마음 편한 현상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늙어 가면서 주의해야 할 유연성 결핍이라고 누

담백한 문장의 妙味



박연호

· 본회 회우
· 전 국민일보 논설 위원

공자, 노자는 사용 한자 수가 아직 많지 않고, 필기도구가 충분치 않아 말과 글을 아껴야 했던 춘추시대 사람들이고, 맹자와 장자는 합종연횡 등으로 유세객들이 말과 글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했던 전국시대 사람들이라는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양측의 글맛은 현저하게 다르다.

그렇다고 맹자의 명쾌한 논리와 장자

런미 등이 넘치는 문장을 아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독특하고 화려한 맛이 있다. 그러나 책을 덮고 나면 재료와 양념이 요란하고 빛깔이 사치스런 음식을 먹고 난 뒤처럼 뭔가 허전하고 아쉽다.

그런 문장들은 세월이 지나면 화장독만 진하게 남은 늙은 여자 얼굴을 대할 때처럼 마음이 편치 못하다. 밤에 쓴 남의 연애편지를 보았을 때처럼 괜히 내가 미안하고 안쓰럽다. 그래서 문학서적들을 많이 처분해버린 것이다. 픽션보다는 넉픽션에 더 자주 손이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운문 중에서는 월산대군이나 성종의 시조, 가도의 '심은자불우' 하지장의 '회향우서' 왕유의 '잡시' 유종원의 '강설' 이규보의 '영정중월'처럼 짧고 질박하면서도 긴 여운을 남기는 한시 등에 마음이 자주 간다. 이런 시들은 문자 그대로 담박하면서 '書盡而言不盡 言盡而意不盡'(글이 끝나도 말은 남아 있고, 말은 끝나도 뜻은 무한)하기 때

현란한 修辭보다 간명함이 좋아 月山대군등 時調·漢詩가 긴여운

군가 비난한다 해도 적극 변명할 생각은 없다.

나는 대체로 간명한 글을 좋아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식어가 없고, 주어 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이상적이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일반인을 위한 자연과학 계통의 교양서적을 즐겨 읽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누군가가 수학공식이야 말로 인류가 지닌 의사 전달 표현 가운데에서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말에 적극 공감한다. 수학도가 되지 못한 것이 한스럽지만 말이다.

그런 점에서 한문 고전 가운데서도 '논어' '노자' 류의 책에 친밀감을 느낀다. '논어' '노자' 등은 문장이 짧고 설명이 간결하다. 반면 '맹자' '장자' 등은 문장이 길고 설명이 간단치 않다.

의 호방함을 싫어한다는 말은 아니다. 문장만 갖고 보면 그렇다는 뜻이다.

문학작품으로는 헤밍웨이의 소설, 김용성의 '도둑일기', 이문희의 '흑맥' 같은 종류의 글맛을 좋아한다. 저자의 감정개입이 극도로 자제되고, 수사 역시 최대한 절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구사하는 단어의 다의성과 모호성이 문학의 원동력임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설들을 비난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취향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다. 내가 문학을 연구한다거나 그와 관련한 업을 일삼는다면 취향이 달라도 포용하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 없으니 내 식대로 즐긴다는 뜻이다.

감탄이 절로 솟게 하는 멋과 기교, 화려한 수식어 구사, 유행에 맞춰진 세

문이다. 마치 말없이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같다.

음식으로 치면 영어의 Comfort Food(그리운 옛 맛 또는 정겨운 음식) 같다고나 할까. 우리로 치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것이다. 한국인이면 언제 어디서나 그런 음식을 좋아하듯이 나는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문장들을 즐긴다.

그러나 현란한 문장이 요즘 추세인 듯, 스트레이트가 생명인 언론의 문장마저도 수사와 기교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해설 기사 등에서 주로 그렇다는 말이다. 신문을 읽고 난 뒤 가끔 말 많고 시끄러운 사람 옆에 있다 온 것처럼 어수선한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게 상당한 이유인 것 같다. [박연호]

있는 한국 스키발상지 기념탑(1949년 건립) 뒤에는 40명의 스키 관련 인사 명단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문 회우 이름도 들어 있다는 것.

요즘엔 한글학회 사무실에 나가니 학회 사람들과 어울리고 李蕙馥 회우, 趙誠國 회우와 가끔 만나 식사를 한다고 한다. 이해복 회우는 나이가 3살 더 많은 문 회우에게 언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인지, 거의 날마다 전화를 해주어 고맙다고 덧붙인다. 회견을 하기 전날에도 전화로 불러내 갈비살에 둘러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한다.

술하에 1남 3녀가 자주 찾아와 보살펴 드린다고 하니 생활에 별 애로는 없어 보인다.

"집에서 대놓고 보는 신문은 한 가지 있지만 읽는 속도가 예전만 못해요. 텔레

비전을 보기도 하는데 뉴스가 답답해.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심어놓은 방송인맥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이었다. "왜들 그러는지 몰라요. 그게 정치운동이지 뭐야. 좌익운동도 이치에 맞아야지."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한글 글씨꼴을 네모틀에서 비껴 주는 일이야. 컴퓨터 표준 자판도 두벌식 자판에서 세벌식으로 쓰게 해주고." 그러면서 문 회우는 소릿글인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일화 한 가지를 소개했다.

"글은 말에서 오는 것인데 한글이 바로 그래요. 그에 비해 한자는 그림을 흉내

낸 뜻글자 아닙니까. 태평양전쟁이 나기 직전 미국에서 미국인 교수가 일본인 교수한테 질문을 했대요.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하고. 일본인은 당연히 일본이 이길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미국 교수는 그같은 대답은 애국심에서 우러난 주장일 뿐 일본이 질 수밖에 없는 데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즉 한자를 쓰는 일본어는 영어에 비해 명령을 전달하는 속도 면에서 뒤진다는 거예요. 군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을 총사령부에서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를 거치며 말단 사병에 전달하기까지 영어가 더 빠른 소통을 하게 해주고 전쟁에서 기선을 잡아 결국 소릿글인 영어를 쓰는 미국이 승리한다는 논리였지요." [박연호]

배낭여행을 떠나봅시다

9월 초에 아내와 둘이서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사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갔으니 엄격한 의미에서 배낭여행이라기보다 그냥 아내와 둘이서의 자유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듯하다.

참고로 아내와의 배낭여행은 9월 초에 떠나 15일간 유럽의 스위스, 이탈리아 중서부, 오스트리아 빈을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배낭여행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겠지만 첫째 글자 그대로 여행 짐을 배낭에 넣고 메고 다니는 여행이고 둘째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현지 형편에 따라 숙소를 정하고 목적에 따라 일정을 신축성 있게 조절하는 여행이라고 하겠다.

앞서 말한 대로 이번 여행을 내가 배낭여행이라기보다 일종의 자유여행이라고 한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숙소를 구하러 다니는 어려움 때문에 대강 일정을 정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관광을 하려면 여러 곳을 부지런히 다녀야 하겠지만 이번 배낭여행은 전에 몇 번 스쳐지나간 미술관과 성당을 한번 더 자세히 보고 티롤지방의 호수를 천천히 돌아보며 쉬는 것으로 정했다.

자연스럽게 스위스와 이탈리아 토스카나 그리고 오스트리아 남부로 여행지를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스위스의 취리히, 인터라켄, 루체른, 루가노와 이탈리아 중서부 토스카나 지방의 라스페치아, 플로렌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호텔을 예약했다.

대부분 지역이 한 두 번씩 스쳐 지나간 곳이지만 라스페치아에 머물며 칭게테레(다섯 마을)를 처음으로 방문했고 아시시와 시에나 그리고 루가노도 이번에 처음 찾은 곳이었다.

호텔을 예약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각국의 호텔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니 역에서 가깝고 싼 호텔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몇 시간을 걸려 호텔을 찾으면 가격이 안 맞고 가격대를 맞춰 찾으면 호텔에서 너무 멀어 무거운 배낭 메고 찾아가기 힘들 것 같고 해서 끝내 내 힘으로 예약을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자문을 구했던 여행사에 패키지로 맡겨버렸다. 현지에서의 교통수단은 먼 거리는 원칙적으로 철도를 이용하되 가능하면 배도 이용하고 도시에서는 버스나 전차를 주로 타고 부분적으로는 걷는 것도 감수하기로 했다. 택시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아 배낭여행 방법을 고집했다고 생각한다.

유레일 패스는 유효기간 두 달에 8회 승차하는 셀렉트 세이버 1등으로 끊었다. 왕복 비행기는 핀란드의 핀 에어를 이용하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예약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유럽행 비행기 가운데 핀 에어가 가장 요금이 싼기 때문이다.

배낭여행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짐 꾸리기라고 하겠다.

오 건 환
· 본회 회우
· 전 KBS 파리 총국장
· 전 방송협회 사무총장



아내와 함께 열차에서.

아내의 배낭은 4kg, 내 배낭은 6kg 이내로 하고 따로 기내 반입이 되는 크기의 바퀴 달린 자그마한 트렁크를 준비했는데 무게는 역시 5kg 정도였다.

겉옷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속옷 세벌, 양말 세 켤레를 기본으로 현지에서 빨아 입는 것을 원칙으로 최소화 한 결과였다. 옷 이외에는 세면도구, 카메라와 전화기의 충전기 그리고 초콜릿과 캔디 등 약간의 비상식량이 전부였다.

아침은 호텔에서 해결하고 관광 시간과 돈을 아끼려고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샌드위치를 만들어 점심을 해결했고

부부 함께 자유여행... 15일간 유럽 일대 돌아 인터넷 통해 호텔 예약... 철도·버스 이용 값싸

저녁도 대부분 늦게까지 다니느라 돈 안 들고 시간 뺏기지 않는 테이크 아웃식으로 해결했다. 정식으로 식당에서 주문해서 저녁을 먹은 것은 단 두 차례 뿐이었다.

전체 비용은 비행기 요금이 1인 당 135만원, 유레일패스 셀렉트 세이버 1등으로 8일권이 한 장에 359유로이고 호텔비는 더블 기준 1일 평균 100유로 정도로 별 2~3개짜리 수준이었다.

진짜 배낭여행을 하려면 유스호스텔의 도미토리(합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1인 1박에 대체로 아침 없이 20~30유로 안팎으로 예산을 세우면 된다. 유스호스텔도 가능한대로 다음 행선지를 정하는 대로 예약을 하는 것이 숙소 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유럽도 대도시에는 한국인 경영 민박집이 있는데 아침과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도미토리는 1인 1박에 30유로, 2인 가족실은 하루 60~70유로 정도를 받고 있어 배낭여행객은 물론 일반 자유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한국 민박집이 한국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은 숙박비 때문이 아니라 아침저녁 한식으로 푸짐하게 집에서 먹는 것과 같은 밥상을 받을 수 있는 점과 여행정보를 교환하고 인터넷을 무한



칭게테레(Cinge Tere-다섯 마을)중 한 마을. 지중해 연안의 칭게테레는 최근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칭게테레 마을의 중심은 해안선을 끼고 발달돼 관광객이 몰려든다.

정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호텔은 인터넷의 속도도 느리면서도 한 시간 사용료가 보통 12유로 정도이기 때문에 E-메일 확인을 위해 12유로씩 들이기에는 여행객으로 부담하기 쉽지 않아 아예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박을 함께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어느 도시에 도착하든 먼저 투어리스트 패스부터 샀다. 대부분 이 패스로 케이블카도 탈 수 있었다.

주의할 것은 스위스의 경우 등산열차는 유레일 패스가 통용되지 않고 승차권을 따로 사야 하는데 이 등산철도 요금이 만만치 않다.

또 하나 유레일 패스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용 당일에 본

인이 반드시 날짜를 기입해야 하는 것이다. 무심코 기차 타는 것만 생각하고 날짜를 적어 놓지 않고 검표에 응하면 기차 없이 벌금 12유로 정도를 매긴다.

나도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 밀의 라우테부르넌까지 가던 기차 이용 둘째날 날짜를 기입하지 않아 벌금을 냈는데 사정사정했지만 결국 벌금 6유로를 뺏겼다.

마지막으로 유럽도 어느 나라나 대중교통 요금, 관광지 입장료 등에 시니어 우대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간혹 무료도 있어 노인 우대권을 잘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일반 경비를 꽤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운다.

애기를 하다보니 배낭여행보다 여행 경비를 줄이는 방법에 치중한 느낌이 든다. 진짜 배낭여행을 즐기려면 다른 여행객과 2등 열차를 타고 유스 호스텔에서 어울리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부대끼며 다양한 문화를 느끼는 것일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유레일패스를 시니어에게 무조건 1등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이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고 싸구려이지만 호텔을 이용한 것도 유스 호스텔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여러 나라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스스로 줄인 것이어서 아쉬웠다. [4]

현지 교통비와 미술관 박물관 등 관광지 입장료로 하루 평균 35~40유로 정도가 소요됐다. 유럽의 미술관과 관광지 입장료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은 예약비가 19유로로 입장료 14유로보다 더 비싸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쁜 여행일정에서라도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예약비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우피치 미술관은 예약자 입구와 예약 없는 일반 관람자 입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예약자 우선 입장을 시키면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예약 없는 관람자를 입장시키기 때문에 오전 9시 이전에 미술관을 찾아 1시간쯤 기다리면 입장료 14유로만으로 10시쯤 입장해 충분히 미술관 관람을 할 수 있어 우리 내외도 이 방법을 택해 입장료보다 비싼 예약료를 아낄 수 있었다. 사전에 관광 정보를 꼼꼼히 챙기면 이런 득을 볼 수 있다.

과일과 초콜릿 등 간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음식값도 줄이고 시간도 아껴 더 많은 관광시간을 가지면서도 다소 강행군을 할 수 있는 활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지 교통편은 관광객을 위한 1일권 또는 3일권을 사면 유럽은 어느 곳이든 모든 대중교통 수단 즉 전차, 버스, 선

이런 생각 戊子年을 보내며 저런 생각

단점은 눈감고 장점은 키워나가자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가 되면 우리는 장점보다는 약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정부 행정이 엉망이고,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혹은 정당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다가 미국 모기지 여파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직면, 금리와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평하거나 우리의 약점을 들추어 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경제적인 불황과 아울러 심리적인 불황까지 겹치면 상황은 건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커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장점에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고 단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을 고치려는 생각은 오직 단점에만 노력을 집중한다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 우리 자신이 성과를 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이고 우리 기업이 성과를 내는 것은 우리 기업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키워 나가자면 우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리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일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은 약속의 체계로서 사회는 약속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서 만나서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금전상(金錢上)의 약속에서부터, 애정의 약속,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사회단체장, 친목단체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임기(任期)를 끝내면 반드시 물러선다는 약속, 국제간에는 평화조약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약속에 이르기까지 인생과 사회는 약속의 기초 위에 존립한다.

이것이 계약 사회의 기본 원리이다.



박문송

· 본회 회우
· 전 시사통신 상무 겸 편집국장

서로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감(信賴感)이 무너지고 불쾌감을 초래하며 분노와 배신감(背信感) 때문에 살인까지도 저지르고 국제간에는 전쟁까지 일어나게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대통령이 말바꿈을 잘 하고, 취임사나 연초에 한 말을 그 임기, 또는 그 한해동안 지키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회 혼란이 오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기고 꿈을 가지고 메주를 쑤다 하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사회적인 갈등, 이념투쟁, 천정부지의 물가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언론인회 같은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에서도 단체장들이 약속을 함부로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기욕심에 사로잡혀 단체 운영에 약속을 중요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단체를 혼란 속에 빠지게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상호약속을 지켜야하며 이것을 인간관계의 제일의 계명(誡命)이요, 사회생활의 근본윤리이며 사람 사람의 인격(人格)이다. 신의는 인격의 대명사요 약속은 인격의 동의어(同義語)이다.

이리하여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면서 약속(約束)을 기필코 지키고 수분지족(守分知足)을 좌우명으로 삼아 자아완성(自我完成)을 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언론인회도 해마다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것을 당부한다. [국문]

천금같은 시간, 바쁘게 살린다

늘어가면서 철이 든다더니 갈수록 빨리 지나가는 천금같은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60대와 70대의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또 다르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후회스럽지 않게 보낼까 골똘히 생각해 보곤 하지만 하루 하루 바쁘게 살다보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만반의 노후 대책을 잘 세워놓지 못한 탓도 있지만 손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 노후생활이 그저 바쁘기만 하다. 마누라고생 덜 시켜보자는 심사로 설거지와 빨래, 청소를 도와주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6살 외손자와 놀아주고 백일 지난 쌍둥이 친손자와 손녀 돌봐주는데도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쏟아야만 한다. 신문스크랩과 인터넷자료 정리를 하면서 시사칼럼을 쓰고 방송을 하는것은 현역시절이나 마찬가지로 고된 일이다. 퇴직후 13년동안 계속 방송일을 하고있다는 것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후배간부의 배려로 퇴직 직후 프리랜서로 방송을 시작한 뒤 4대째 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운 좋게 계속해서 원고를 쓰고 방송을 하고 있다. KBS 해설위원실시절 서로 그날의 해설을 맡지 않으려고 남의 아이템을 강력히 추천하던 회의모습이 떠오를 때가 많다. 이렇게 하루 하루를 바쁘게 지내면서도 빠뜨리지 않고 시간을 내 열중한 클래식음악 감상은 내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클래식음악 감상에 폭



장순재

· 본회 회우
· 전 KBS 해설위원 상파울루 특파원

빠져있는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며 마음의 안식처이다. 늘어 철이 들었는지 특히 마음이 괴롭고 우울할 땐 클래식음악을 들으며 상심을 달래본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길을 걸을때 리시버를 귀에 끼고 미리 녹음한 카세트테이프를 듣는게 버릇이 됐지만 천금같은 시간을 아깝게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같아 나 자신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클래식음악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가 500개가 훨씬 넘었다. 죽을 때까지 듣기에 충분한 분량을 확보해놓은 셈이다. 오래된 외제 워크맨이 고장나지 않기를 바라고있다. 부속품이 나오지 않아 고칠 수 없다고 한다. 단종된지 오래된 골동품을 수리해달라는 노인이 안타깝다는 눈치다.

의학적으로는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지만 내몸의 늙은 부속품을 새것처럼 고치기 어렵다는 암시인것 같아 씁쓰레한 기분이었다.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면 바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거듭 해본다. [국문]



철거를 앞둔 기자촌 전경.(조천용 회우 촬영)

두번 째 실향... 새 뿌리 또 내려야

삶의 뿌리가 뽑혔다. 금년도 내생애 두번째 삶의 뿌리가 뽑힌 해이다. 인간에게 유익하겠다고 키워온 가시오가피 나무가 인간을 위해 송두리째 뽑힌 뿌리가 하얗게 되영킨 앙상한 물골의 신세처럼 푸념스럽게...

처음 삶의 터전을 잃고 실향의 아픔은 6·25때다. 인간의 탈을 쓰고 저만의 왕국을 이루려는 위정배의 야욕이 전쟁을 일으켜 수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내쫓은 때문이다. 역경 속에 살아남은 인생 행로에서 제 2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고향을 이루어 오던 기자촌이 무산되면서 제 2의 뿌리가 뽑힌 것이다. 험난스런 산야를 깎아 터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림을 시작하였다. 길이 없어 버스는 물론 전기, 수도도 없었고, 비만 오면 흙진탕 투성이가 되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했다.

이러한 환경에선 도저히 못살겠다고 여윌있는 동료들은 하나, 둘 떠났지만, 홀로 서는 묵묵한 세대들은 갖은 고통



이종운

· 본회 회우
· 전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을 마다하고 2세를 위해 고향을 다지고 살아 왔던 것이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엔 산 속의 샘물이 생명수가 되어 주고, 맑은 공기를 만끽하면서, 가을이면 낙엽지는 소리에 마음을 안착하였다. 폭설의 겨울은 마치 스키장처럼 쌓이는 눈길에 마음이 달라 붙어 인생의 희열을 느끼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듯 30년 이상 뿌리를 내려 살아온 기자촌이 뿌리를 뽑히게 된 것이다.

미래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구각의 향수는 뿌리가 뽑혔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새로운 고향의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나. [국문]

歷史속으로 사라지는 記者村

68년 조선일보 재직 당시 기자촌 분양신청을 했는데, 그 때 집값이 두칸집 전세값 정도 그대로 어렵사리 마련한 돈으로 분양을 받아 기자촌 450여 세대의 일원이 된 것이 40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그 기자촌이 40년만에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기자촌 주변에 몇해전부터 건설중인 은평뉴타운 아파트 단지에 흡수됨으로써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주민으로 발전(?)적 변화를 겪게 된다. 주민들은 시가에 따른 보상을 받고 고급아파트를 대체 취득하였으니 재산상 손실은 없다지만 어쩐지 서운한 마음은 가셔지지 않는다. 기자촌 옛집을 떠나 아파트 생활에 든지 1년, 비소리 바람소리 들을 수 없는 적막한 고층 콘크리트 상자에 갇혀 가끔 잠결에 옛집 앞 뜰과 뒤뜰을 거닐다 가슴이 울컥해지는 아픔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기자촌에 처음 입주했을 때만 해도 젊은 나이로 전원생활을 한답시고 50평이



심재복

· 본회 회우
· 시사만화가

나 되는 마당에 잔디를 심었는데, 일을 맡은 정원사가 엉터리였는지 잔디는 자라지 않고 잡풀만 돌아나 잡초밭이 되어 버렸다.

토끼 새끼를 몇 마리 사다놓고 길렀는데 풀밭을 귀엽게 뛰어다니고 해서 아이들 놀이감으로는 좋았으나 토끼장이가 허술해서인지 장마철에 비 맞은 토끼가 모두 폐사해버린 일도 있었다.

해마다 마당에 고추, 오이, 호박, 상추, 쪽파, 딸기, 가지, 더덕 등 가지가지들 심어 재미보며 40년을 살아온 옛집을 생각지는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다. [국문]

대한민국 방송뉴스의 틀을 깨다

- ▶ 공중파 메인뉴스 사상 최초 여성 앵커 공동진행
- ▶ 방송리포트의 새로운 모델 제시
- ▶ 공중파 사상 처음 지역뉴스 단독 편성



KBS 8 뉴스타임

KBS 2TV

월 ~ 금요일 저녁 8시

진행 ▶ 정세진 이윤희

大韓言論人會 新入회우 환영합니다.

· 가나다순

길윤석(吉允錫)



1950년생. 한국일보 편집부 차장, 서울경제 종합편집부장 겸 부국장-국차장-편집국장 대리.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은마A 25동 403호 우)135-970 전화)016-288-0670

김휴선(金休宣)



1944년생. MBC TV 뉴스테크 부장-스포츠 취재부장-부국장, 한국 언론재단 미디어 감사, 선진한국 체육총연맹 부회장, 서울 동작구 상도동 431 래미안 상도3차A 321동 504호 우)156-732 전화)016-266-7868

양휘부(梁輝夫)



1943년생. KBS 보도제작국장-해설위원-창원방송총국장,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3-24 우)135-888 전화)02-544-9798

이정운(李正允)



1936년생. 동아일보 출판부장-신동아부장-출판국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사회복지법인 남해자이원 원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A 10동 309호 우)137-779 전화)02-535-7141

최재욱(崔在旭)



1940년생. 동아일보 정치부차장, 경향신문 사장,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 2선, 환경부장관, 서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포스홈타운 201동 404호 우)446-566 전화)010-3134-3285

김대환(金大煥)



1941년생. 대한일보 기자, 우리은행 이사 회 감사위원, 서원물산 회장(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9 현대A 65동 801호 우)135-905 전화)011-313-2631

민병문(閔丙文)



1939년생. 동아일보 경제부장-논설위원 실장, 해럴드경제 주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아아크로비스타 B동 509호 우)137-921 전화)02-518-3322

이시현(李時憲)



1938년생. 동아일보 문화부장·조사부장·논설위원, 서울 성북구 돈암동 630, 동소문 현대A 101동 308호 우)136-758 전화)010-8910-9897

이흥기(李洪基)



1943년생. KBS 해설위원-파리총국장, 보도제작국장-인터넷(KBS)대표이사, 방송위원회 방송평가위원, '성현언론기금' 이사장.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5-67 금호어울림 A 102동 1505호 우)135-574 전화)016-9282-8597

최종철(崔鍾哲)



1935년생. 동아방송부장-동아일보 사회부장-편집부장-동경지사장-심의실장, SBS 전무,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포스홈타운 203동 801호 우)446-566 전화)011-9052-0792

김인규(金仁圭)



1950년생. KBS 정치부장·보도국장·뉴미디어본부장, 한국 디지털 미디어산업협회 회장,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아시아선수촌 A 18동 401호 우)138-797 전화)010-3293-9437

신동호(申東濤)



1934년생. 조선일보 편집국장-주필-대표이사 부사장, 스포츠조선 사장,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80-45 청암빌라트 601호 우)137-847 전화)011-762-8223

이재원(李在遠)



1939년생. 서울신문 정치부 차장, 청와대 정부비서관, 정부1차관실 차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1 기산A 304동 902호 우)463-924 전화)016-221-6446

정서진(鄭瑞鎭)



1953년생. 목포 MBC 기자, 세계일보 경제부장-논설위원-편집국장,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A 3동 903호 우)138-979 전화)019-442-5577

한영도(韓永道)



1932년생. 미국 CBS 방송 보도국 기자-서울 특파원-월남종군기자-서울지국장,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38 현대 ESA 아파트 807호 우)137-860 전화)02-583-5991

취재 備忘錄

① 女교사 刑場에 끌려가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인 9월 15일을 1주일쯤 앞두고 해마다 해병대사령부와 육군 17연대는 각각 기념식 참석 초청장을 보내온다. 이 작전에 투입된 병력의 대비는 육군은 연대병력이고 해병대는 대대병력인지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념식 PR전에서는 해병대가 단연 앞서고 있다. 일반 국민은 육군 17연대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가 보다.

해병대는 인천시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얻고 있고 평화 기념공원엔 맥아더 원수의 동상이 우뚝 서 있고 시민들은 '상륙작전' 하면 곧 해병대를 연상하기 때문에 육군 17연대의 존재는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육군 17연대는 지금 강원도 인제와 원통리에 가까운 오지에 주둔하고 있다.

기념식엔 지방유지 몇몇과 당시 연대장이었던 백인엽 예비역 중장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인천 상륙작전은 맥아더 원수의 뛰어난 전술적 두뇌에서 나온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이 작전으로 낙동강까지 진격해 포진해 있던 북한군은 보급로가 끊기고 퇴로가 막힐세라 일제히 퇴각하기 시작, 전세는 일시에 역전되고 말았다.

코린스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일본 도쿄로 비래, 맥아더사령부에서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참모들은 모두가 무모한 작전이라고 반대했다.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칫 작전이 어긋나면 아군의 희생이 겹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코린스 원수도 이에 동의했다. 회의 추이를

보고만 있던 맥아더 원수가 조용한 어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적군도 예상하지 못하고 안심하고 있을 터이니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설득했다. 코린스 원수는 마지 못해 이 작전을 승인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런데 9월 15일 D-day(작전개시일)를 며칠 앞두고 AP통신은 급전으로 이 대작전을 터뜨리고 말았다.

세기의 특종을 한 기자는 펜네임이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산업인 및
· 종군기자 동우회 부회장

병사 3~4명이 섬 정상에 성조기를 세우는 사진이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닷바

긴박했던 仁川 상륙작전 전말 AP종군기자 手記 생생히 기록

'빌·신'(申化鳳씨)였다. 맥아더 유엔군 사령부는 발각 뒤집혔다.

'빌·신'은 정일권 3군 총사령관을 방문, 부산항 동쪽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 육군 17연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찌된 것인가고 파고 들었다.

정 장군은 할 수 없이 작전의 대략을 내비추었다. 인천 상륙작전 계획을 미리 보도한 '빌·신'은 AP 본사 발령의 기자였기에 아무일 없이 무사히 넘어갔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리에 끝났다. 육군 17연대는 유엔군과 함께 서울을 향해 정면으로, 해병대는 연희고지를 넘어 측면으로 쳐들어갔다.

그리고 해병대는 중앙청 옥상에 대형

라에 쓰러지려는 대형 성조기를 3~4명의 병사가 안간힘을 다해 바로 세우려는 사진이다. 그런데 어느 사진기자가 연출했던 것이다.

그들 중 유달리 얼굴이 또렷이 나타난 병사가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개신한 이 병사는 전쟁 영웅으로 떠받들려 여기저기 불러 다녔다. 시민들은 열광하면서 이 전쟁 영웅에게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 병사는 그게 아니었다고 고백하려 했으나 그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일은 점점 크게 벌어져 갔다. 이 병사는 양심의 가책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끝내는 자살했다던가.

6·25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AP통신

종군기자 7~8명이 종군수기 책을 냈다. 일본에서도 번역 출판됐다. 책 제목은 〈통곡의 길을 가다〉(慟哭のみ?をゆく)였다. 용케도 이 책이 내 손에 들어왔다. 단숨에 읽었다. 가슴을 때렸다. '빌·신'의 글도 실렸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실이 탄로나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과정이 생생히 묘사된 내용이었다. 정일권 3군 총사령관의 허락으로 취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끌려가면서 여교사는 줄곧 통곡했다. 언덕 너머서 탕! 탕! 탕! 총성이 울려 퍼졌다는 데서 글은 끝났다.

그 후 어느 날 우연히 '빌·신'을 만났다. 그 책을 읽었노라고 했더니 만면에 웃음을 띄며 아주 좋아했다. '빌·신'은 책의 제목이 바로 '여교사의 통곡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와는 가까워졌고 나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다.

20년 전쯤인가 육군 17연대 기념행사에 갔다. 연대본부 여기 저기를 돌아보던중 전쟁기념관에 들어 갔다. 너무나 반박했다. 연대장에게 '빌·신' 이야기를 했다. 연대장의 눈빛이 확 달라졌다. AP 본사에 연락해서 특종기사 원본을 보내 달라고 하고, 우리 말로 번역해서 함께 전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빌·신'의 사진을 함께 했으면 더 좋겠지. 내년 기념일에는 '빌·신'을 꼭 초청하라고도 했다. 왕복 비행기 티켓을 보내고 감사의 금일봉도 준비하면 좋겠다 했다.

그 다음 해 기념식에 나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빌·신'이 초대됐다는 소문을 듣고 나혼자 흐뭇했다. ☞

나는 한 달 전부터 108배 운동을 시작했다. 한 선배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 그는 4개월 전부터 새벽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8배를 한다. 온 몸에 힘이 솟을 뿐 아니라 술을 전보다 더 마실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머리로 이전보다는 한결 맑아졌다고 한다.

사실 나도 2년 전 4개월 가량 108배를 아침마다 해본 적이 있다. 그 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훨씬 덜 나갔다. 운동을 하지 않고, 날마다 저녁술을 하다 보니 그만 82kg이 넘고 말았다. 그래서 만나는 선배 회우들로부터 전보다 몸이 좋아진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이쿠! 이러다 자칫 큰 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성주 공간으로부터 108배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다”하고 108배를 시작했다. 운동의 효과는 열흘도 안돼서 나타나는 것 같았다. 우선 15분도 안 걸리는 시간동안 108배를 하고 나면 몸에 땀이 흐른다. 그 자체만 해도 운동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절을 마친 후 일어서서 5분가량 맨손체조와 온몸 운동을 한다. 몸에는 땀이 더 많이 땀다. 이어서 샤워를 한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사실 최근 청경스님이 TV를 통해 이 운동을 소개하고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 운동을 가르쳐준 결과 정신 불안이 해소되고, 집중력이 배가되어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108배는 육체적인 운동일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108배를 매일 하기는 쉽지 않다. 며칠 하다보면 그만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작을 하나 마나이다.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없는 노



김 건 이

· 본회 상임이사
· 전 세계일보 사회부장
· 논설주간

인들에게는 권할 만한 운동이 아닌가 싶다. 호흡이 가쁠 정도로 빠르게 할 필요도 없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해도 운동 효과는 나타난다. 그리고 절을 한 다음에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는 게 좋다. 그래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운동을 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더욱 좋다.

절을 할 때는 두꺼운 방석이나 요를 깔고, 그 위에서 한다. 절을 하는 요령은 양쪽 팔을 좌우로 편 뒤 머리 위로 올렸다가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붙인다. 이마를 땅에 댄 다음 손바닥을 하

늘로 향하게 한다. 다시 손바닥을 땅에 짚고 천천히 일어난다.

호흡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다만 들이마신 공기가 단전으로 들어갔다가 숨을 토한다는 기분으로 하면 된다. 호흡에 매달리다 보면 절 운동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이 운동으로 한 달 동안 몸무게 1kg을 줄였다.

왜 하필 108배인가. 불교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끊어야 할 고인이 그만큼 많다고 해서 숫자가 매우 많다는 뜻을 가진 108을 붙여 108번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108배를 하면 그만큼 자기의 업(과거의 행위)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다. 108번에 의미를 붙이는 것은 생각한다. 나는 이 운동을 할 때 절마다 의미를 붙여본다. 1배=우주 하느님 감사합니다. 2배=아버지 감사합니다. 3배=어머니 감사합니다. 4, 5, 6, 7... 108배= 형제자매, 아들딸, 손자손녀, 친구의 이름을 되뇌면서, 감사합니다를 반복한다. 그렇게 하면 진짜 내 마음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난다. [P]



회 우 동 경

· 가나다순

월간 '변영' 회장 말아



* 김재봉(전 매일경제신문 회장) 회우=최근 월간 <변영-인간답게 사는 길>의 회장직을 맡아 나로 우주센터 르포 등 활발한 집필활동을 펼치고있다.

천주교회 신자 피정서 특강



* 김 현(여행연출가) 회우=지난 11월 2일 '위령의 날'을 맞아 번동 천주교회가 마련한 전 신자 피정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특강. 김 회우는 12월엔 천주교 서울 대교구 주교의 평신도 칼럼인 '말씀의 이삭'란에 4편의 칼럼을 집필할 예정이다.

강원도 육군부대 방문 특강



* 박기병(한국기자협회 고문) 회우=지난 11월 10일 강원도 횡성의 1107 공병단과 130 환경대대 그리고 19 일에는 춘천 81 경비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안보강연을 했다.

네팔서 교회봉헌 예배



* 박종서(광고대행사 베컴 회장) 회우=지난 11월 3일부터 9일까지 네팔의 카트만두 서남쪽 꾸링갯 마을

에서 불의의 사고로 소천(召天)한 아들의 이름으로 건립한 교회의 봉헌예배를 했다. 또 치투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고아 400여명을 돌보고 있는 소망의 집 'Hope House'를 방문, 예배를 했다.

공영방송 진로 토론회



* 성병욱(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회우=11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영방송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시낭송회서 '시와 인생' 강연



* 유자호(시학회 회장) 회우=지난달 11월 22일 오후 서울 할리스커피 포스 코점에서 비영리 문화 나눔단체인 사색의 향기 문화원(원장 공용권) 산하의 '향기 시 사랑회'가 주최한 '커피향 가득한 사색의 향기 시 낭송회' 제 1부에서 "시와 인생"을 주제로 강연.

부동산 시장 국제 세미나 개최



* 이태교(서울부동산 포럼 회장·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회우=포럼창립 5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2일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2008 World Real Estate Forum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나?"를 제목

으로 국제 세미나를 가졌다.

디플로머시 창간 33주 세미나



* 임덕규(월간 Diplomacy 회장) 회우=지난달 11월 21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버클리홀에서 독일 뮌헨대 고트프리트 킨더만 교수를 초청해 "대북정책 타결방안"을 주제로 월간 디플로머시 창간 33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

UDF 일본 세미나 참석



* 최귀조(본회 이사)=12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에서 열리는 'UPF 세계 20여개국 언론인 일본 특별세미나'에 참석, 지난달 30일 출국.

방송인 동우회장 중임



* 한영섭(한국방송인동우회장) 회우=지난 10월 방송 원로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인동우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중임됨. 대한언론인회 부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한 회우는 '방우회' 사무실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풍림빌딩으로 옮기는 등 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회비 내신 회우

· 2008년분
김광섭 김종열 박진서
성재삼 신동호(07년 포함)
이두환 정두진 정종표
천승준 최시호(05-09)
한동원 황원갑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북한산 대동문에서 기념촬영.

산악회 送年山行 성황

11월 13일 북한산에서 20여명 참석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안종우)는 지난 11월 13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 대동문에서 2008년 송년 산행을 가졌다. 이 날 임한순(전 연합뉴스 외신국장) 회우가 북한산 대동문에 얹힌 이야기를 회우들은 실감나게 경청했다.

하산 뒤엔 우이동 한 음식점에서 뒤풀이 오찬을 갖고 회우

들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산행에 동행한 회우는 다음과 같다.

△강명수 △강진형 △김영호
△맹태균 △안종우 △안평선
△여구만 △이윤래 △이우진
△이정세 △임한순 △장 옥
△전익식 △정운종 △조덕일
△지용우 △지정식 △최귀조
△최상목 △최희호 △한영탁

본 회 日 誌

11월 · 5일 = 후생복지위원회
· 10일 = 편집회의
· 13일 = 산악회, 북한산 등반
· 15일 = 건강강좌
· 17일 = 제 3차 대한언론상심사위원회
· 28일 = 자격심사위원회

주 소 · 전 화 바 꾸 었 습 니 다

· 이병천(李丙天) 회우=서울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 I-PAR 아파트 114동 1303호 우)110-877
· 동홍석(董弘石) 회우=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119-3 유당마을 723호 우)440-843
· 우경식(禹慶植) 회우=인천 서구 가좌2동 진주A 11동 406호 우)404-762 전화)070-8229-1353
· 김성배(金聖培) 회우=010-5230-2700
· 김호기(金豪基) 회우=010-8358-3868
· 이민희(李民熙) 회우=010-5690-7320

누군가에게 장미꽃을 선물할 용기를 주는 일

누군가에게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는 일

누군가에게 어릴 적 일기를 다시 보게 하는 일

누군가에게 러닝머신에 올라갈 다짐을 주는 일

누군가에게 나눔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일

누군가에게 배낭과 세계지도를 챙기게 하는 일

누군가에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일

누군가에게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뵙게 하는 일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찾게 해주는 일

누군가에게 아버지께 전화할 생각을 갖게 하는 일

바로 방송과 광고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새 얼굴, 새 다짐으로 코바코가 꿈과 사랑,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방송과 광고를 키워가는 사랑받는 공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는 방송광고 영업대행을 통해 방송사의 안정적인 경영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www.kobaco.co.kr



다 함께 웃는 대한민국 건설, 주·토공 통합공사가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행복을 키워갈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주·토공 통합공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다 함께 웃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인하

택지가격 인하와
개발기간 단축 등으로 주택가격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거복지사업에 투입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앞당기겠습니다.

효율경영 달성

양 공사의 중복기능을 해소하여
주택·도시건설 및 국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주택·도시개발

세계최고수준의 테마형 도시건설 등
미래지향적 주택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

